

## 다산포럼

구중서



## [ 오피니언 ]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가 많아 마련이다. 이야기는 같은 시대 같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이에서 생겨난다. 그러나 사람이 보고 겪은 일들을 가리지 않고 다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다.

남들에 대해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다는 말이다. 누구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도 인간이니만큼 완벽하기는 어렵다. 장점이 큰 인물인데도 어떤 일면에는 문제가 있는 점이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되도록 발설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할 수 있다.

## 국민의 심부름꾼 VS 지도자

그런데 그 옥의 티 같은 한 가지 일이 실상 중요한 문제로서 다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꼬투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세월이 상당히 지난 다음에는 누구의 그 어떤 문제점에 대해 재미삼아 이야기를 날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1980년 4월쯤인가 이른바 '서울의 불'이 만개한 때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친 아

우인 양 밀던 부하의 총격에 의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뒤이니, 이제 나라가 그 혹독했던 유신 군부독재로부터 저절로 벗어나리라고 모두가 기대했었다.

그때 민주화운동의 선봉이요 정점이었

지도자를 잘 만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지였다.

김대중 선생이 앉은 의자는 손님들이 앉은 의자보다 커는데, 조명등이 또한 그 주인쪽을 비추고 있다. 나는 솔로 한 마셨겠다 기분이 상기되었던지 불쑥 한 마디의 발언을 청했다.

“지금 지도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 해도 퍼블릭 서번트 즉 국민의 심부름꾼이니까 ‘지도자’ 개념의 적용에서부터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소설가와 시인들이 와 앉

신상웅 형, 그리고 나였다. 수유리 세일극장 건너 편 골목 안에 ‘양철집’이라고 하는 오래된 술집이 있었다. 우리 일행 세 사람은 2차로 그 양철집에 가서 다시 상을 차렸다.

## DJ, 권위주의 폐단 못버려

신상웅 형과 나는 불만이었다. 김대중 선생이 소설가 송원희 여사를 가리켜 박완서 여사라고 불러 시정을 받았다. 그리고 보니 방문자 개개인에 대해 김대중 선생이 자상히 확인하며 인사하는 절차도 없었다. 그리고 그 ‘지도자’뿐이 아니라.

그래도 양철집 주석에서 신형과 나는 문의환 목사에게 부탁했다. “그래도 후광(김대중 애호)을 좀 도와주세요” 했다. 그래도 유일한 대안이니까. 문 목사는 그 때 까지 만해도 후광과 그렇게 직결된 관계는 아니었다. 이날 밤에 문 목사는 “그러면 판을 짜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 했다. 그 이후 그는 그 어려웠던 이른바 ‘비판적지지’ 운동의 선봉에 섰다.

양김의 분열로 실패를 더 겪은 후에 후광은 대통령이 되어 6·15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민족의 역사 발전에 큰 공적을 남겼다. 다만 한 가지, 권위주의의 폐단을 버리지는 못했지만.

〈문화평론가·다산연구소 제공〉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지도자론

던 정치인 김대중 선생이 동교동 자택으로 문학인들을 초대했다. 자유실천문인협의회 간사들 10여 명이 초대되어 갔다. 나도 그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넓지도 좁지도 않은 마루방에 의자들이 마련되어 있어 우리는 거기에 앉았다. 초녁이었던지 식사 전에 조그만 양주잔이 각자에 돌려졌다. 나중에 국회의원이 된 웃은 남자 비서가 술잔을 날랐다. 나는 맨 뒷자리 구석으로 자리를 잡았다.

초청인인 김대중 선생이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지도자론’이 나왔다. “과거에는 문학인과 지식인들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고생을 하고 봄번도 당했는데, 앞으로

있는데, 제3세계 케나에서는 케나타라는 이름의 소설가가 독립된 케나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세네갈에서는 시인 생고르가 대통령이 되어 정치를 잘 했습니다.

이렇게 문학예술인들도 한 전인적 인격

자로서 나라 일을 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이 말에 김대중 선생이 웃으며 답변을 했다. “구선생은 평소에 나를 잘 아시니까 좀 봐주실 줄 알았는데…” 좌중이

와하고 웃음을 터트려서 분위기가 어색하게 되지는 않고 넘어갔다.

회식이 끝나고 수유리 쪽에 사는 세 사람

이 함께 돌아왔다. 문의환 목사, 소설가

## 시설

## 광주·전남 서비스산업 활성화 시급하다

광주·전남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같

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서비스업 성장률이 수년째 둔화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다른 지역에 비해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 지식산업과 서비스업, 제조업 간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경쟁력 약화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역 서비스업 성장률은 1995년 이전 9% 암ぱ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3%대에 머물러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비중이 가장 큰 통신과 금융·보험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각각 1.1%, -1.4%를 기록해 전국 평균의 6.3%, 2.6%에 크게 못 미쳤다. 서민들의 체감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숙박 및 음식 등 개인 서비스업 성장률도 5.9%에서 1.6%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성장에 대한 서비스업의 기여율은 68.7%에서 35.3%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급락했다.

광주·전남지역 서비스업은 지역총생산(GRDP)의 46%, 취업자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 증대,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비생산적이며 제조업의 보조기능 정도로 인식되던 서비스산업이 최근 새로운 성장동력을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없이는 지역경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지역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금과 같이 타지역에 비해 서비스업 마인드가 크게 부족해선 새로운 서비스 수요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통 서비스업의 현대화·대형화와 함께 고급 인력 육성 등을 서둘러 서비스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특성화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사교육비 세계 최고 부끄러운 교육 현실

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은 국민들에게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주고 있다는 데 있다. 사교육비에 공교육비를 합치면 민간이 지출하는 전체 교육비는 엄청나다. 서민들은 교육비 부담으로 생계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

사교육비 실태는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교육비 지출은 지난 2003년 2.9%로 OECD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OECD 평균 0.7%의 4배에 달한다. 특히 대학교육비의 공공부담 대비 민간부담 비율이 3.7배로 OECD 평균(0.36배)은 물론 학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1.8배), 일본(1.4배)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최대 목표는 자녀를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중이 큰 것도 사립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사교육비 세계 최고의 ‘불명예’를 벗지 못하면 국가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예산을 대폭 늘려 민간부문의 부담을 최대한 낮춰야 할 것이다.

## 無等鼓

골프를 하는 사람이라면 느끼는 것인지만 골프는 쉽지 않은 운동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이같은 질문에 골프 황제 짱 니클라우스는 임팩트 때 드라이버가 단 1도만 벗어나도 시속 100마일 정도로 날아가는 공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물리적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스포츠 해설가이자

의학박사로 그와 절친한 호주 출신의 골프 전문가 존 티컬은 니클라우스에게 골프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려줬다. 한 경기의 길이 각각 가로 200m, 세로 140m, 높이 10m에 걸친 골프 코스를 18홀을 4시간 내에서 완주하는 것이다.

그럼 펜더를 보면서 삶의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가 위로해 줄까?

◇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 살아있는 동물 인형 ‘팬더’



곰 인형, 예나 지금이나 가장 인기 있는 인형 중 하나다. 오죽했으면 미국 대통령 뉴네임으로 ‘테디베어’라는 호칭이 붙었을까?

예전 크리스마스 앞두고 호주 여행 중 시드니 국제공항의 거대한 트리 아래 장식된 수백 개의 곰 인형에 대한 기억은 여지껏 생생하다.

곰이 사는 나라가 아닌 호주에서조차 곰 인형으로 공항을 장식하는 것을 보면 세계인들에게 곰 인형은 그만큼 대중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인형의 포근함 때문이라도 곰 인형은 클수록 좋다. 또 하나는 편안함이다.

보통 곰 인형은 곰의 위험한 요소인 발톱과 이빨을 모두 제거한 상태로 곰의 동그란 이미지를 가져다 쓴 것. 이

때문에 곰 인형에게서는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곰들 중에서 팬더는 단연 압권이다. 팬더는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의 상징 모델이며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팬더를 소유한 동물원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입장료를 따로 받을 정도로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이 주제대로라면 금세기 멀종 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장 취약한 동물 종이라고 한다. 인간의 간섭 때문에 말이다.

그럼 팬더를 보면서 삶의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가 위로해 줄까?

◇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 국민없는 로스쿨 논쟁

다.

이는 우리나라 대국민 법조인비율이 OECD 30개국 중 최하위이고, 매년 3천 명씩 20년간 법조인을 배출해도 OECD 국가 중에서 중하위권에 진입하는 데 그치는 정도가 되는 정도다.

최근 로스쿨 논쟁은 입학정원을 둘러싼 교육부와 각 대학의 정치적 대결뿐 아니라.

또 논의의 초점에서 국민의 사법서비스 개선은 제외된 점이 우려된다. 로스쿨 논의가 시작된 2005년 사법개혁추진 위원회가 제안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은 법조인 양성을 수요에 맞춰 양을 늘리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법조인의 수를 늘리므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수요를 충족하고 법률을

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최근 로스쿨 설립을 준비하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지방에 있는 대학의 교수 빼가기에 여념이 없고, 이로 인해 지방의 대학생들은 수업차질과 정서적 상실감이라는 지방차별의 쓴맛을 감내하고 있다.

또 로스쿨 논의의 주제로 입학정원에만 집중되고 있고 ‘로스쿨의 지방분산’이라는 원래 취지는 논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

사법개혁이 제대로 진행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지방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 각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정지역에 집중하지 말고 전국의 광역권별로 균형배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인의 수를 늘리므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수요를 충족하고 법률을

## 대학 경쟁력은 ‘영어 강의’로 결정되지 않는다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두 명의 동생들을 보면 ‘영어를 위한, 영어에 의한, 영어의 영어교육’을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 정도이다. 영어로 강의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걱정될 때가 많다. 영어로 강의하는 수업 시간에는 말하는 교수나 듣는 학생이나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국의 영어강의 하는 대학과 강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한다.

▲송희수·나주시 송총동

## 작년 돼지고기 21만톤 수입…원산지표시 적용돼야

양돈을 하는데 돼지 고기도 국산인지 수입인지 표시를 해야 한다.

왜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구분해 소고기만 원산지를 표시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돼지 고기 삼겹살 중 국산이 아닌 수입 산이 버젓이 국산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도심 지역 시민들도 대부분 짐작하고 있다.

그런데 식당에서는 전부 국산이라고 한다. 안 먹을 수는 없고 확인하기는 어려워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사 먹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돼지고기는 21만 톤, 식당에서 구워 먹은 삼겹살 중 수입산이 그만큼 많을 수 밖에 없다.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돼지고기에게 대한 원산지 표시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자기 돈 내고 먹으면서 식당 주인에게 속아서야 되겠는가.

▲최다연·광주시 서구 풍암동

##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장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정 치 부	2200-616	여론조사부	2200-62	